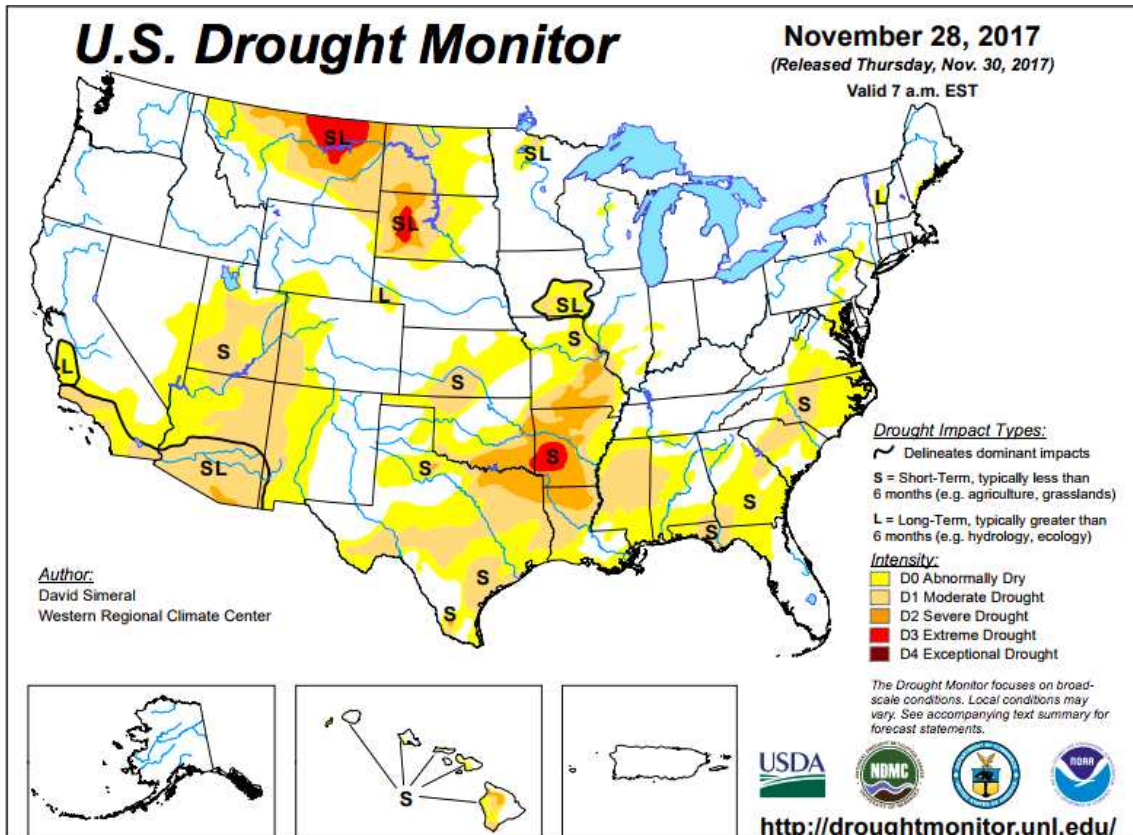


12월 0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49)

□ 미국 기후 현황(11/26~12/02)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되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저지대에서는 비가, 고지대에서는 눈이 내렸는데, 특히 이번 눈은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산간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이 지역 적설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 밖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동부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 태평양 연안 지역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중부 평원과 남서부, 중서부 북부 지역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1/27~12/03)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과 로키산맥 북부 지역 등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렸고, 그 밖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가운데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걸프만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한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중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는데, 다코타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서 기온이 평년보다 15°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캐나다와의 국경지역 일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50~60°F까지 오르기도 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였고, 메인 주의 경우 맑은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다.

□ 세계 기후 현황(11/26~12/02)

■ 유럽: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중부와 서부 유럽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5°C 미만으로 내려갔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밤 동안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 프랑스 북부와 잉글랜드 남동부 등에서는 지난 7일간 평균 기온이 5°C 미만이었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이때부터 겨울밀의 휴면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 남부와 동부, 중부의 고산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쌓였다. 스페인 북부에도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고, 기온이 평년보다 8°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 겨울밀의 휴면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비가 한두 차례 내리는 가운데 밀, 보리, 카놀라의 수확작업이 진행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 동부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곳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이번 비로 수확을 앞둔 작물들은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면화 등 여름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한층 더 밝아졌다. 서호주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서호주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고, 남동부에서는 3~4°C 정도 기온이 높았다.

■ 아르헨티나: 서부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Buenos Aires 서부, La Pampa, Cordoba 남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가운데 처음 내린 비였으며, 이번 비로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물러갔다. Parana 강 하류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Chaco 등 주요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Formosa 동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9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p 정도 앞서서 수치이다. 면화의 파종률은 52%를 기록했고, 대두의 파종률은 48%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Mato Grosso, Bahia 서부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Mato Grosso 주정부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99%를 기록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7일 기준 대두 재배지의 20%가 filling stage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1월 30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 파종률은 각각 70%, 99%를 기록했다.